

# 전문가의 요람, 경원대학교 ‘첨단IT 일류대학 달성하겠다’

‘벼락공부’로 지난 10년 인터넷 인프라에 전력투구한 수험생을 연상시키는 우리나라의 손에 쥐어진 정보화 사회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부끄러운 자화상’일까, 정보강국의 장밋빛 미래일까. 최근 고학력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형 전문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실습위주의 교과과정 편성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경원대학교를 찾아봤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한 분야의 정보화가 아직 미진한 부문에 정보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정보화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제까지의 정보화 성과를 돌아보고, 좀더 발전적이고 고도화된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정보화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 보급률만 봐도 지난 9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54.8명, 65.7명당 1대였으나 2002년 현재 8.3명, 6.2명당 1대꼴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른 질문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구축한 정보화 인프라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모든 교실이 정보화 기기로 무장하고, 학생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만이 과연 교육정보화의 진정한 모습인가.

## 실습위주 교과과정 편성이 ‘묘약’

교육정보화의 척도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 사용한 기준은 대개 인프라 수준을 조사해 비교, 분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정보화가 우리 교육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대규모 투자비용이 든 교육정보화가 과연 원래 의도했던 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쯤 자문해볼 때가 된 것이다.

교육정보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이다. 교육은 그 특성상 효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시대는 아직 먼 미래이고,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3~4년 전부터 산업적 기대감과 더불어 관련학파가 크게 늘었던 디지털콘텐츠 분야 역시 이제야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형 전문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시각차가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창의력이 우선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현장에서 딱딱한 이론만 배워온 학생은 ‘즉시 전력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대학과 기업의 단절을 벗어나기 위한 한국대학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산학연계와 실무 교육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교육인증 기준에 맞춰 교과과정을 바꾸는 대학이 늘고 있다. 소프트웨어대학(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실습위주의 교과과정 편성에 주력하고 있는 경원대학교가 좋은 사례.



## 인터뷰 / 오해석 경원대학교 IT부총장



IT를 비롯한 신지식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경원대학교의 뒤에는 오해석 부총장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 경원대를 정보통신 일류대학으로 육성해 달라는 바램 아래 IT부총장이라는 새로운 '특명'이 부여된 것. 오 부총장은 숭실대 재직시절 대학정보화평가 1위, 정통부 지정 정보통신우수

대학원 선정, 국내 첫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정보화 부문에서 숭실대의 이름값을 높이는데 특출한 몫을 했었다.

오 부총장은 경원대학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첨단IT 일류대학' 달성을 위해 우선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u캠퍼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글로벌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IT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철저한 실습위주의 교과과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방송국을 설립, 사이버강좌 등을 늘려 학부와 석사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오 부총장은 또한 가천의 대와 협력해 의학과 IT를 결합한 메디컬SW학부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과 관련, 운영의 모를 살려 기숙사를 창업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 첨단 IT대학으로 만들 복안이 있는가.

- 우선은 대학행정 및 학사업무 정보화를 위한 e캠퍼스, 무선망 이용 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e캠퍼스,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현을 위한 u캠퍼스, 지식기반캠퍼스 구축을 위한 k캠퍼스 구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일류 첨단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습위주의 교과과정 편성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 ◆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대학행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속도전에서 뒤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CEO의 결정으로 사업이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총장이나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고시의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산업발전에는 기술자들의 몫이 컸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생겼다. 국가행정에 있어서도 실무진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경원대학교는 IT를 비롯한 신지식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에서는 드물게 ERP(전자적자원관리)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고 전자도서관 및 사이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첨단 정보화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전략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학교는 대학내 창업보육센터를 신축,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턴십 코스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교내에 기업들을 실제로 입주시켜 대학교육 4년중 1년은 현장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과 관련, 운영의 모를 살려 기숙사를 창업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화하는 방안도 이 대학의 그랜드비전중 하나다.

최첨단 학교를 만들겠다는 경원대학교의 일련의 계획들은 지난 2001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온 일이다. 대학에서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학술대회로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행사인 '소프트웨어 국제 워크숍'을 지난 200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개최

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성대학으로 자리잡겠다는 포부가 반영된 것.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컴퓨터·통신 종합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3,000평 규모로 건립될 이 박물관은 하드웨어관·소프트웨어관·통신관·무선통신관·반도체관·매뉴얼서적관·인물관(세계·한국)·삼성전자관·KT관·SK텔레콤관·IBM관·미래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박물관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해외 현장답사와 자료조사를 거쳐 2006년 착공, 200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정보통신 기술과 인물·기업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관련 교육은 물론 국가정책과 산업발전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원대는 이같은 계획이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IT밸리와 연계, 경원대의 정보화 이미지와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